

‘資料’ 연구로 본 동아시아학술원 20년

— 戶籍과 簡牘 자료를 중심으로

金慶浩*

- | | |
|--|--|
| I. 머리말 | III. ‘학술원’과 HK사업(2007.11.~2017.8.); 연구주제의 지속과 확대 |
| II. ‘학술원’ 기반 확충 및 도약기(2000~2007)의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역사’ 연구 | IV. ‘학술원’, 한·중 학술 교류의 ‘橋梁’ |
| | V. ‘학술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 |

● 국문초록

‘동아시아학술원(이하 학술원)’의 출범은 21세기 한국 인문학계에 대해 새로운 연구과제의 창출과 연구기관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성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학술제도의 정착과 연구방법의 창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술원’은 그 목표와 방향을 첫째 한국학·아시아학 분야의 집중연구 및 이론의 개발, 둘째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 수립, 셋째 학문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 넷째 동아시아학의 국제적 교류라고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20세기 한국 인문학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동아시아학의 본산으로서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분야의 선도적 지위의 확보와 21세기 국제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학술원’이 수행해야 할 의무의 수행이었고 그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지난 학술원의 연구 활동 20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학술원’의 연구 활동은 종래 한국 인문학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연구 방법의 전환이었다. 핵심적 내용은 일국적 테두리를 벗어나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체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근대 학문의 분류체계를 지양하며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의 학문을 수립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었다. 즉 ‘학술원’은 동아시아의 다원성과 보편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모델의 개척·소통·확산을 통하여 한국인문학의 創新에 기여하는 ‘복합인문학’ 구현을 그 목표로 설정하였다. 역사학 방면에서의 대표적인 연구 활동은 죽간·목간의 연구로 대변되는 출토자료에 대한 연구와 조선시대 호족 족보 자료를 근간으로 한 역사인구학 분야였고 이러한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였다. 특히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의 10년에 걸친 정례학술회의는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학술원’은 이러한 지난 2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문학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여야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주제의 하나로서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고전학’ 분야를 제안하고 싶다. 더욱이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술원’의 독창적인 연구 방향성과 그 방향성이 시대적 조류와의 관계하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제어 : 동아시아학술원, 출토자료(죽간·목간), 호적, 세계화, 동아시아고전학

I. 머리말

2000년 지구촌 사람들이 긴장과 설렘으로 시작한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던 그 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하 ‘학술원’)은 21세기 미래 창조적이고 융복합적 학문 연구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학술원’은 이러한 목표를 줄곧 지향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한 지가 어느덧 2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20살 된 청년의 인간적 성숙 단계를 일찍이 『禮記』 「曲禮 上」에서는 “弱冠”이라 하였고, 이에 대해 孔穎達은 신체적 미숙함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¹⁾ 또한 인생 목표에서 뜻을 세우는[而立] 연령에도 이르지 못하는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존재가 20세일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서의 ‘20’이란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기보다는 미성숙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미가 더 강한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학술 연구 활동에서의 ‘학술원’의 지난 20년은 “약관”이라는 미성숙함보다는 오히려 짧은 시간에 이룩한 학술적 足跡과 성숙함이었으며, 그것이 21세기 이후 한국 인문학 연구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00년 3월 1일 ‘학술원’의 설립은 당시 성균관대학교 인문학 연구 역량을 대표하는 대동문화연구원의 학술적 기반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학술원’이 지향해야 할 연구의 방향은 대동문화연구원이 축적해 온 『退溪全書』·『栗谷全書』, 그리고 『韓國經學資料集成』 등과 같은 자료의 영인과 『韓國思想大系』 등 적지 않은 연구서 및 국역서의 편찬과 같은 연구와는 차별화되어야 했다. 즉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과적’ 한국학의 연구가 아닌 새로운 연구 분야와 과제를 도출해야 하는 현실에 맞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학술원’ 개원기념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그 사상적 기저”에서 심윤중 총장(‘학술원장’ 겸임)의 다음과 같은 개회사에서 잘 드러나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학, 그 정체성을 어떻게 모색하고 지향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선 그 사상적 기반을 재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동아시아학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의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전망을 서로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1) 『禮記』 「曲禮·上」, “二十曰‘弱’, 冠.” 疏“二十曰弱, 冠”者 二十成人, 初加冠, 體猶未壯, 故曰弱也.”

아학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지향하고자 각자의 연구를 기초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학술회의의 성과가 동아시아의 협력과 공동의 번영을 열어가고 나아가 세계의 발전과 창조에 기여하는 학술적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²⁾

심윤중 총장이 언급한 ‘동아시아학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어떻게 정의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느냐가 출범 당시 ‘학술원’의 당면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김시업 대동문화연구원장의 「동아시아학술원 개원보고」에서 ‘학술원’의 목표와 방향을 “첫째 한국학·아시아학 분야의 집중연구 및 이론의 개발, 둘째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 수립, 셋째 학문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 넷째 동아시아학의 국제적 교류”라고 밝히고 있다.³⁾ 분명 2000년 개원 당시 김시업 대동문화연구원장의 발언 중, “한국학·아시아학 분야의 집중연구 및 이론의 개발”이란 한국학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학문 분야의 개척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학술원’은 ‘동아시아’라는 시대의 화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체가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21세기 시대에 ‘동아시아’라는 미래지향적 연구과제를 선택·결정한 ‘학술원’의 연구 성과를 ‘학술원’ 설립(2000.03)부터 HK사업 이전(2006)까지, HK사업(2007.11) 시작부터 종료 시점(2017.08)까지의 ‘역사’⁴⁾ 자료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성과와 연구 방법 및 국제화 부분, 그리고 향후 ‘학술원’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김시업·마인섭 편,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동아시아학술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요」,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출판부, 2005, 319~320면.

3) 김시업·마인섭 편, 앞의 책, 2005, 320면.

4) 본고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역사’ 부분의 연구성과는 단순한 분과 학문적 연구 성과가 아닌 공동의 연구에 의해서 도출된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Ⅱ. ‘학술원’ 기반 확충 및 도약기(2000-2007)⁵⁾의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역사’ 연구

‘학술원’의 출범은 21세기 한국 인문학계에 대해 새로운 연구과제의 창출과 연구기관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성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학술 제도의 정착과 연구 방법의 창안으로 접목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융합학문으로서의 ‘동아시아학’에 대한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는 이른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통합 공동체를 구상하고 이를 역사와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는 이른바 ‘동아시아론’의 대두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동아시아학’에 대한 고민은 ‘학술원’의 설립을 전후한 1990년대에 많은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던 문제였다. 1990년대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세계화, 지역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등 국제정세의 급변에 대해 각국의 학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담론으로서 동아시아론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한국은 90년대 말부터 최원식, 백영서 등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왕성한 학술활동을 전개한 그룹 등이 그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⁶⁾ 또한 일찍부터 ‘대동아공영권(대동아문화권)’을 주창하여 동아시아 사회변화의 중심을 중화문화권으로부터 이동시키고자 한 제국주의 일본의 동아시아론도 자리 잡고 있었다. 일본의 이러한 동아시아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세계사 속의 지역연구의 한 방안으로 동아시아가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의 논의와의 결별이 모호한 채 아시아 여러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고립, 그리고 전근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사회를 권역별로 설정한 제한적 연구를 진행하여 통일된 동아시아상의 구현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⁷⁾ 제국의

5) 동아시아학술원 발전계획(2003.12)에 따르면 단계별 발전계획을 1단계: 기반확충기(200~2003), 2단계: 도약기(2004~2007), 3단계: 웅비기(2008~2010), 4단계: 완성기(2008~)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목표를 학제적 교육·연구시스템 구축, 국가 핵심 교육·연구센터 건립, 동아시아 거점기관으로 성장, 세계적 동아시아 Hub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최원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2000; 민두기, 『동아시아의 실체와 그 전망』,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 출판부, 2002; 임지현·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등을 참고.

지배 논리와 아시아 사회와의 연대 혹은 고립 등과 같은 논의는 일본만이 가진 역사적 경험이나 현실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문화 중주국으로 자부한 중국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그들이 주창한 ‘동아시아학’ 견해의 일부는 동아시아 ‘異문화’ 간의 교섭을 통해 각각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중국 관련 기록 문헌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⁸⁾

동아시아 사회의 공통적인 문화적 사상적 기반을 한자와 유교에서 찾고자 한 일본의 중국 사학자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지적에 따르면 적어도 중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베트남은 공통된 문화적 사상적 기반 위에 전통사회에서 근·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발전한 나라들이다.⁹⁾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논의되는 ‘동아시아학’은 자국의 관점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였다.¹⁰⁾ 왜냐하면 학문의 장에서 논의된 이슈가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지평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의 전후관계하에서 ‘학술원’에서 동아시아학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생성하고자 시도한 다양한 학술 연구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도 매우 밀접한 문제였다. ‘학술원’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고민은 상기한 ‘학술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몇 편의 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동아시아학이라고 하지만 한·중·일 삼국에는 각기 자국의 학적 전통이 있어 왔다. 또 그 학적 전통은 각기 자국의 역사적 위치와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역사적 위치와 조건을 초월해서 동아시아학이라는 한층 더

7) 東アジア地域研究會 片山 裕+西村成雄 編, 『東アジア史像の新構築』, 青木書店, 2002; 廣瀬憲雄,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1; 堀 敏一, 『東アジア世界の形成-中國と周邊國家』, 汲古書院, 2006; 川勝 守 編, 『東アジアにおける生産と流通の歴史社會學的研究』, 中國書店, 2003 등을 참고.

8) 復旦大學文史研究院 編, 『從周邊看中國』, 中華書局, 2009.

9) 西嶋定生,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岩波書店, 2000.

10) 대표적인 자국중심적 역사인식 또는 해석을 보여준 예는 중국의 ‘東北工程’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학회·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2012; 馬大正, 『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등을 참조.

폭넓은 학을 이룩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다. 즉 동아시아학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자국의 학적 전통을 버리고 그대로 합류할 수 없는 것이다¹¹⁾

- ② 이런 일련의 상황 변화를 따라 동아시아 담론이 일어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담론은 무성한데 비해 알맹이는 얼마나 튼실한지 적이 의심스럽다. ‘동아시아학’이란 어찌 보면 대단히 새삼스럽지만 사실은 지난한 과제이다. 동양학 혹은 동아시아학이란 이름이 붙은 학술기관이나 책자를 허다히 보아 왔다. 문제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하는 사고와 논리로 구축하되, 인류 보편의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동아시아 여러 민족국가들의 우호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다¹²⁾

①과 ②에서 제시한 ‘동아시아학’의 개념은 자국중심주의적 역사 이해 및 인식의 지양과 소통과 평화 그리고 다원성을 상호 인정하는 보편적 동아시아상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즉 ①에서 언급한 “자국의 학적 전통을 버리고 그대로 합류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기존 학계의 공고한 벽을 새로운 학문과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쉽사리 넘을 수 없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즉 기존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보편주의적 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그 앞길에는 험난함이 놓여 있다는 우려 섞인 마음을 피력한 것이다. ②에서 언급한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동아시아 여러 민족국가들의 우호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란, ‘동아시아학’이 이상적인 사회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해야만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국의 학적 전통’은 자국중심주의적 역사 해석으로 강화되어 오히려 각 국민국가의 패권을 옹호 지지하는 이론적 역할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였다. 또한 ‘여러 민족국가들의 우호 연대’는 동아시아적 시각—역사 해석—이 오히려 각 국의 주체의식의 결여와 ‘국적’ 불명의 역사 연구로 전락하거나 糊塗될 염려가 매우 높은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학’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설립과 학문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대내외적 상황하에서 ‘학술원’의 기본 방침과 기본 목표는 동아시아학의 본산으로서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분야의 선도적 지위의 확보와 21세기 국제사회에 대한 미래지

11) 이우성, 「동아시아와 한국」(김시업·마인섭 편, 앞의 책, 2005), 15면.

12) 임형택, 「동아시아와 유교문화의 의미-동아시아학의 주체적 수립을 위한 모색」(김시업·마인섭 편, 앞의 책, 2005), 52면.

향적 대응이었다.¹³⁾ ‘학술원’의 기본 방침과 기본 목표는 무엇보다도 20세기 한국 인문학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지향점이었다. 지난 20세기 한국 인문학은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주력한 결과, 주변 사회의 동향과 세계적 질서 구조의 변화를 등한시한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역사학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 역사 인식에서의 탈피가 무엇보다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이해의 강요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학문 이슈로 등장한 ‘동아시아학’은 단순히 연구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나아가 이에 기초한 사회 제분야를 재구성하는 이념이자 방법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답을 해야 했고, 이를 주체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한 곳이 ‘학술원’이었다.

‘학술원’이 준비한 답은 종래 한국 인문학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연구 방법의 전환이었다. 즉 일국적 테두리를 벗어나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근대 학문의 분류체계를 지양하며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의 학문을 수립하고 현실 적용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일국적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자국의 역사, 문화 등 여러 인문학 관련 분과학문의 연구를 지양하고 이를 통합하는 실질적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술원’ 설립 당시에는 아마도 이러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연구자간에 형성되었을지라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현실적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연구자 자신이 스스로 학제간 연구의 실현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기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술원’의 기반확충(2000~2003) 및 도약기(2004~2007)는 ‘학술원’에서의 ‘동아시아학’ 모색과 관련한 학제적 융합적 연구 활동을 시도·추진하고자 한 시기였다.

13) ‘학술원’의 기본방침은 “건학이념에 따른 숙원사업의 실현-동아시아학의 본산”이었고, 기본목표는 “한국학·동아시아학 분야의 특성화로 선도적 지위확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이념이 될 동양 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 인문학의 집중육성을 통한 학문발전 토대 구축, 교육과 연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학문발전의 새로운 전략 수립, 혁신적 구조로 학문분야, 연구모델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각각 제시하였다[동아시아학술원 발전계획(안) 연구결과 보고(2차 설명회), 발표자: 한기형 박사(한국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 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외, 2001년 5월 8일(화), 주최: 동아시아학술원].

먼저 ‘학술원’의 기반확충 및 도약기의 주요 실적과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아시아학술원 주요 실적 및 현황(1997.1.1.~2007.7.31.)¹⁴⁾

성과지표	단위
연구비수주금액	197억원(연 평균 17.9억원)
연구과제 건수	146건(연 평균 13.2건)
국내학술회의 개최	114회(564명)
국제학술회의 개최	49회(발표자 503명; 한국인 232명, 외국인271명)
정기간행물 출간	5종(국제학술지 2종) *SJEAS: A&HCI 등재신청(2007.11) *대동문화연구, 학진등재지신청(2005)
단행본 발간	7개 총서 53종 발간, 우수학술도서 선정(11종)
연구인력	전임교원, 연구교수, 직원 포함 80명
전공분야 전임교원 배출	동경대, 산동대, 서울대 등 25개 대학 33명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학술원 연구비의 대부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연구과제에 선정된 것에 기인한다. 물론 상기한 <표 1>에 반영된 주요 실적의 수치는 ‘학술원’ 산하의 모든 연구조직이 수행한 결과이지만 모두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하에서 추진된 연구성과였다. 이 기간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146건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과제는 대략 10건 정도이며,¹⁵⁾ 이 중 역사 부분과 관련

1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II), 소통과 확산: 동아시아 연구를 통한 한국 인문학의 창신』, 2007.08, p.1. 아울러 <표 1>의 내용에는 ‘학술원’ 설립 이전인 1997년(0건), 1998년(2건, 147,000천원), 1999년(3건, 136,500천원)의 주요 실적도 포함되어 있지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15) ①세계체제 형성기 한국 전통 사회의 변동에 대한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2000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00.9.1.~2006.8.31.), ②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 전산화 사업(국학연구지원사업, 2001.10.1.~2006.7.31.), ③근대 전환기 동아시아3국(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국인식(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 2002.8.1.~2005.7.31.), ④호적대장과 민적부를 통해 본 19세기 지역 사회의 구조와 갈등 양상: 진주, 제주권을 중심으로(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2003.9.1.~2006.8.31.), ⑤한국유학의 학파적 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 및 번역과 DB화-『동유학안』의 번역 및 주석 작업을 중심으로(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2003.9.1.~2006.8.31.), ⑥발해의 영역 확장과 말갈 지배 관련 디지털콘텐츠 개발(우리문화 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업, 2004.11.1.~2005.6.30.), ⑦동아시아

있는 연구과제는 戶籍과 근대 전환기 시기 관련 연구이다.(각주 15번에 제시한 ②,③, ④,⑧과제) 서술의 편의상 역사 부분 관련 연구과제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동아시아학술원 역사 부분 주요 연구과제 현황(1997.1.1.~2007.7.31.)

연구기간	연구과제(지원사업명)	지원연구비 (천원)	연구비지원 기관명
2001.10.1.~ 2006.7.31.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 전산화 사업 (국학연구 지원사업)	740,063	교육부
2002.8.1.~ 2005.7.31.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3국(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국인식(기초학문 육성 지원사업)	1,494,000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9.1.~ 2006.8.31.	호적대장과 민적부를 통해 본 19세기 지역 사회의 구조와 갈등 양상; 진주, 제주권을 중심으로(기초 학문육성지원사업)	623,400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11.1.~ 2005.6.30.	발해의 영역 확장과 말갈 지배 관련 디지털콘텐츠 개발(우리문화 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업)	232,768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2005.9.1.~ 2008.8.31.	근대한러관계연구(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532,800	한국학술진흥재단

<표 2>에서 언급한 모든 연구과제는 종래 분과학문의 연구처럼 역사 연구자만이 참여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3국의 한국인식”과 “근대한·러관계연구”와 같은 연구는 필연적으로 문·사·철 등 인문학의 주요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활동이다. 따라서 종래 학문 간의 배타성으로 높은 벽을 형성하였던 인문학에 새로운 연구 분위기와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 활동은 국학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연구의 시각을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아 근대언론매체사전 편찬 및 디지털사전 DB구축(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2005.9.1.~2008.8.31.), ⑧근대한러관계연구(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2005.9.1.~2008.8.31.), ⑨제3,4,5차 한구종합사회조사와 시범적 연구(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2005.9.1.~2008.8.31.), ⑩기초학문자료센터 설립을 위한 시범적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기초학문자료센터설립, 2005.12.16.~2006.6.30.).

2000년대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한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선정은 ‘학술원’의 연구기반 조성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3국의 한국인식」과 「근대 한러관계 연구」 등과 같은 연구과제는 문사철의 학문분야 연구자들이 참여한 학제간 연구의 결과였지만, 이 과제에서의 역사 분야 연구자들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팀들이 과제의 종료와 함께 새로운 연구주제와 지평으로 심화·확장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된 것은 ‘학술원’의 연구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와는 달리 1999년부터 교비 지원으로 꾸준히 1차 자료의 전산 입력을 진행한 ‘戶籍’연구는 ‘학술원’의 기반확충 및 도약기 시기 역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호적’과 관련한 연구지원은 ‘학술원’ 성립 이전 시기인 1999년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경상도단선형호적대장」의 한글 전산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 그 시발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2001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5개년에 걸친 호적대장 전산화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학진흥사업으로 한글데이터 교정, 漢字전산입력 및 교정을 진행하는 종래와는 다른 ‘전산화’라는 새로운 자료(data)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동문화연구원은 이러한 자료의 구축을 기반으로 2000년 12월, 2001년 6월과 11월, 그리고 2003년 4월 등 4차례에 걸쳐 호적대장의 사료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¹⁶⁾하여 그 성과를 『대동문화연구』 등의 학술지에 게재하였다.¹⁷⁾ 이러한

16) 제43회 「동양학학술회의: 丹城戶籍의 전산화와 사료적 성격」(2000.12.9.); 제45회 「동양학학술회의: 한국 전통사회의 변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모색 I-전통사회의 운영원리와 변동에 대한 대응양식」(2001.6.15.); 제46회 동양학학술회의 「동양학학술회의: 한국 전통사회의 변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모색 II-중세적 인식론의 변환과 새로운 담론의 모색」(2001.6.16.); 제48회 「동양학학술회의: 조선 후기 호적대장의 ‘호」」(2001.11.10.); 제55회 동양학학술회의 「호적대장에 나타나는 사람들」(2003.4.18.).

17) 『대동문화연구』 제38집(2001.6)에는 鄭震英, 「조선 후기 향촌 양반사회의 지속성과 변화상(2)-安東 鄉案의 入錄인물 검토」; 李勝雨, 「戶主制度의 沿革의 考察과 立法論-유교적 전통성 논의와 관련하여」가 게재되었고, 제39집(2001.12)에는 기획 주제 “丹城戶籍의 史料의 성격”하에 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준형, 「조선 후기 단성지역 사회변화의 역사적 특성-사족층이 입지변화와 대응을 중심으로」; 노영구, 「朝鮮後期 戶籍大帳 研究現況과 電算化의 一例」; 권내현, 「朝鮮後期 戶籍의 作成過程에 대한 分析」;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 김건태, 「朝鮮後期の 人口把握 實狀과 그 性格-단선형 호적 분석」; 손병규, 「戶籍大帳 職役欄의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호적대장 전산화 작업과 관련 연구 활동은 국제학술지에 소개¹⁸⁾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아시아학회(AAS)에 패널로 참가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해외 학계에서도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등 지원사업의 종료 때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학술원’의 중요 학문연구 분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시기 동안의 관련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물은 대동문화연구원총서인 『단성호적대장연구』¹⁹⁾과 『慶尙道丹城縣 社會資料集』 1-3의 발행이다. 더욱이 『단성호적대장연구』 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호적연구 활동은 향후 ‘학술원’의 주요 연구과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²⁰⁾

대동문화연구원이 주관이 된 단성호적의 전산화 연구사업은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자료를 전산화하여 ‘인구사’라는 학문 영역을 새롭게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2006년 국학진흥사업이 일환인 「경상도 대구부 호적대장 전산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10년간 관련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인구사’ 학문 분야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18) Kim Kuentae, *Eighteenth Century Korean Marriage Customs: The Tansŏng Census Registers*, CONTINUITY AND CHANGE 20-2, 2005.

1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호적대장연구팀, 『단성호적대장연구』(성균관대 출판부, 2003)의 발행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학술활동을 종합한 결과이다. 즉 2000년 12월에 ‘호적대장의 전산화와 사료적 성격’을 대주제로, 그리고 2001년 6월에 ‘호적대장의 직역’을 대주제로 대동문화연구원과 한국역사연구회의 공동주최로 발표되었다. 2001년 11월에 세 번째의 호적대장 연구발표회가 ‘호적대장의 戶’라는 대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003년 4월에는 호적연구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호적대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의 연구발표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발표되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그 동안 개별적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논문들 가운데 단성호적을 사용하여 연구한 논문들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본 연구총서로 묶게 되었다.

20) 제61회 동양학학술회의 「호적을 통해서 본 단성지역의 사회계층」(2004.5.18.); 제67회 동양학학술회의 「호적으로 보는 주변적인 신분, 계층」(2005.5.20.); 제74회 동양학학술회의 「교육부 국학연구지원사업 평가회의-『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여」(2006.7.27.).

Ⅲ. ‘학술원’과 HK사업(2007.11.~2017.8.): 연구주제의 지속과 확대

2000년 ‘학술원’의 설립부터 2006년까지의 시기는 대동문화연구원이 이룩해 놓은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의 모든 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밀레니엄 시대의 학문 시장을 선도하는 학술제도의 정착과 창안을 모색하는 기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결과 상기한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빠른 기간 내에 한국의 인문학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결과 네 개의 연구소(대동문화연구원, 유교문화연구소, 동아시아지역연구소(후에 중국연구소로 개편됨), 서베이리서치센터와 동아시아자료정보센터(존경각), 일반대학원 동아시아학과, BK사업 등의 조직을 산하에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과 연구조직은 자연스럽게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분과학문 체제를 극복하고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인문학’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과 연구 환경의 변화는 인문학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방향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인문학이 종래의 연구 방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 받는 것 대신에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증명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 속에 ‘학술원’은 동아시아의 다원성과 보편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모델의 개척·소통·확산을 통하여 한국인문학의 創新에 기여하는 ‘복합인문학’ 구현을 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현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교육부가 주관한 연구 기간 10년(2007.11.~2017.8.)의 장기 프로젝트인 ‘인문한국(Humanities Korea)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것은 새로운 학문 모델을 생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학술원’은 이른바 ‘복합인문학’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과학문을 극복하는 학제간 연구단위를 1)생활, 2)지식, 3)질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단위의 설정은 대학 연구소의 고유한 전문성과 연구 방법론을 통한 한국학계와 세계학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관연구 모델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 셈이다. 따라서 3개의 영역에서 추진하고자 한 연구과제의 성격 또는 내용은 종래의 ‘문·사·철’이라는 배타적이고 분과적인 학문 연구의 성격이 아닌 통합적 학제적 성격의 주제로서 ‘동아시아 생활양식의 차이와 지속’,

‘동아시아 지식체계의 구조와 변동’, ‘동아시아적 질서의 원리와 운영’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성격은 모두 학제적 연구를 기초로 한 내용들이지만, 이 가운데 비교적 역사 분야의 연구 내용과 밀접한 주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HK사업 중 역사분야의 주요 학술 내용

영역	주요 학술 내용
생활	고대 동아시아 출토자료 연구
	호적 및 족보를 통한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장기변동
지식	동아시아 전통지식 체계의 형성과 변용
질서	근대 동아시아 질서체계의 형성과정에 대한 재해석

생활영역의 고대 동아시아 출토자료 연구는 종래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출토된 竹簡, 木簡 등의 자료를 활용한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해명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한 과제였다. 특히 역사학은 물론이고 언어·문자학, 사상사 등의 여러 학문이 두루 참여하는 종합적인 학술 접근을 통하여 융복합적 연구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HK사업의 지원으로 조직된 ‘동아시아자료학연구회’²¹⁾가 주관하여 HK사업 2차년도에 개최된 「東아시아 資料學의 가능성-출토자료를 중심으로」(2008.8.28.~8.29) 국제학술회의에 잘 반영되었다. 본 학술회의는 4개국(한, 중, 일, 대만) 11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학술회의로서 ‘자료학’의 입장에서 그 간의 출토자료의 연구를 종합하고 고대 문자(언어), 역사, 사상 분야에서 학제적이고 총체적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대해 보고자 한 의도였다. 더욱이 21세기 출토자료 연구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중횡으로 소통하여 동아시아 사회의 밑그림을 만들어

21) 본 연구회에서는 지향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이 일국사적 시각에서 文史哲과 같이 분과학문적으로 연구해온 종래의 학문적 방법론을 지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민족우월주의적 태도도 물론 극복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와 문화의 고유성 및 다원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시대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전근대 및 근대이후의 문화적 소통과 확산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동아시아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본 연구회가 지향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권인한·김경호·이승률 책임편집, 『동아시아자료학의 가능성-고대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출판부, 2009, 9면).

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종래 실증(체) 없는 담론 혹은 이론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을 극복한 새로운 실증적 자료연구를 통한 동아시아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²²⁾ 학술회의의 결과는 『동아시아자료학의 가능성』(성균관대 출판부, 2009)으로 출간됨과 동시에 중국사회과학원 간백연구중심의 「간백연구문고」 시리즈로 번역 출간²³⁾되었고 무한(武漢)대학 간백망(簡帛網, <http://www.bsm.org.cn>)에도 그 출간 소식이 소개²⁴⁾되어 연구기반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아시아자료학연구회는 2008년 조직 후, 지속적인 활동으로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반의 조직,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활동을 통한 연구 인프라의 조성,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연구기반의 확대라는 일정과 목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3년이 경과한 시점에 28차례의 소규모학술모임(국내외학자 초청 세미나, 강독회 등)과 2회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본 연구회가 표방한 ‘자료학’을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학술 활동의 두 번째 결과물은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라는 단행본의 출간이었다.²⁵⁾ 본 서에서 주목한 내용은 ‘한자의 전파’란 일방적으로 중국의 문자인 한문을 소통시킨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사용 방법으로 변용되면서 문화 형성을 촉진시키거나, 지역 상호간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점이다.²⁶⁾

22) 김경호, 「21세기 동아시아 출토문자자료의 연구현황과 ‘자료학’의 가능성-고대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자료학의 가능성-고대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중심으로』(권인한·김경호·이승률 책임편집), 성균관대출판부, 2009, 67면.

23) 權仁瀚·金慶浩·李承律 編, 『東亞資料學的可能性探索』,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24) 무한대학 간백망(<http://www.bsm.org.cn>)에 학술회의 소식이 소개(2008-08-29)되었으며(http://www.bsm.org.cn/show_news.php?id=153), 단행본의 발간 소식(http://www.bsm.org.cn/show_news.php?id=261) 역시 본 web-site에 소개되어(2010-04-29) 학술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5) 권인한·김경호·이승률 책임 편집,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출판부, 2011.

26) 권인한·김경호·이승률 책임 편집, 앞의 책, 제3부 「목간과 문자의 세계」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정에서 목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자(한자)의 역할과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질서와 문화의 다양성 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정력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한 동아시아자료학연구회는 고대 동아시아 출토 문헌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의 발굴과 연구 성과의 발표는 동아시아학술원 연구 성과에 커다란 족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 성과의 절정은 미공개된 죽간 『논어』의 발견이었다. 이 자료는 북한의 평양에 소재한 한나라 시대의 기원전 45년경 낙랑군 하급관리 묘에서 발굴된 자료이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한계는 더 이상의 연구를 진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오랜 추적 끝에 관련 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이성시(일본 와세다대), 윤용구(인천도시개발공사, 현 경북대)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는 일본과 중국학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동일 연구 성과에 대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²⁷⁾ 이와같이 ‘학술원’에서 진행된 판독회와 학술회의의 활동은 종래의 전통적 연구 주제와는 달리 ‘출토자료’라는 새로운 주제를 통한 학문 연구기관으로서의 허브(hub)로서 자리매김하는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입수한 사진 자료를 통한 판독작업은 자연스럽게 『논어』 죽간 자료를 중심으로 진일보한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학술회의의 개최로 이어졌다. 2010년 8월 26~27일 이틀간에 걸쳐 “『논어』와 동아시아-地下의 논어, 紙上の 논어”라는 주제하에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저명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추후 2편의 연구 성과를 편집한 것이 바로 『地下의 논어, 紙上の 논어』이다.²⁸⁾ 본서에 수록된 연구 성과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논어』 텍스트를 통한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동아시아자료학연구회에서 소개한 새로운 자료인 낙랑 『논어』 죽간과 동 시기 중국 내지에서 사용된 한대 『논어』 목간에 대한 비교·이해, 그리고 6~8세기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7) 이성시·윤용구·김경호, 「平壤 貞柏洞364號墳출토 竹簡『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제4호, 한국목간학회, 2009; 李成市·尹龍九·金慶浩 筆(橋本 繁 譯), 「平壤貞柏洞三六四號墳出土竹簡『論語』について」, 『中國出土資料研究』第14號, 中國出土資料學會, 2010; 李成市·尹龍九·金慶浩, 「平壤貞柏洞364號墳出土竹簡『論語』」, 『出土文獻研究』(中國文化遺產研究院 編)第十輯, 2011; 이와 관련하여 이성시는 3개국어로의 논문 번역은 평양 출토 『논어』 죽간이 텍스트로서 갖는 학술적 의의가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목간 죽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세계-한반도 출토 목간의 의의를 중심으로」, 김경호·이영호 책임편집, 『『地下의 논어, 紙上の 논어』, 성균관대출판부, 2012, 144면).

28) 김경호·이영호 책임편집, 『地下의 논어, 紙上の 논어』, 성균관대출판부, 2012.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한자 및 유교 사상의 전파와 수용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할 수 있다.

동아시아자료학연구회가 조직되면서 연구의 주요 목적인 ‘동아시아학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 활동은 바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었다. 첫 번째 답변인 『동아시아자료학의 가능성』(2009)은 동아시아 출토문자 ‘자료’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고, 두 번째 답변인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2011)의 출간은 죽간과 목간을 통한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한자 수용, 제국 질서의 성격 등과 같은 자료학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연구 성과에 기초한 세 번째 답변은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의 출간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 성격을 규정한 『논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조직의 일련의 활동과 성과는 ‘학술원’이 동아시아학 연구기관으로 명실상부한 평가를 받는데 일조를 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학술원’은 전통적인 학문 연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위상의 획득은 ‘학술원’이 성립하면서 제기한 분과적 학문을 지양하고 학제적 통합적 연구의 지향이라는 ‘새로운 인문학’에 대한 학술적 신뢰를 한국 인문학계에 주었다고 할 수 있다.²⁹⁾

‘생활’ 영역에서 출토자료의 연구와 함께 주요한 연구과제는 호적·족보에 대한 연구이다. ‘학술원’에서의 출토자료가 새로운 학술 영역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었다면, 호적에 대한 연구는 이미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구축된 연구 성과의 지속적 측면이 강하다. II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동문화연구원은 2000~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지원연구소에 선정되어 단성호적 전산화 작업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그 후속으로 「경상도 대구부 호적대장 전산화사업」을 10년 동안 수행하였다. 정부지원과 교비의 자체지원은 호적과제에 대한 연구인력의 안정화 및 전문화 그리고 장기 연구과제로서의 진전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안정적 연구기반의 조성은 대학의 자체 지원에 근거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안정적 연구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호적연구를 대동문화연구원은 물론이고 나아가 ‘학술원’의 대표성을 가진 연구 분야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연구의 중심이

29) HK사업단이 주관한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출토자료 연구의 현재와 미래』(2017.02.14.~15.)는 출토자료 연구의 진행이 10년 동안 ‘학술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에서 기관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연구비 지원에 의존하는 열악한 한국 인문학계의 상황하에서 장기 연구비 지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것은 호적연구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연구비 수주를 통해서 추진되어 왔지만, 향후 교비지원만으로 연구의 위축없이 지속적인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대동문화연구원이 수행한 단성호적과 대구부호적의 전산화 구축 사업의 수행은 자연스럽게 ‘학술원’이 추진한 ‘동아시아학’으로 그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호적과 족보에 보이는 인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조선시대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의 장기변동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인구학적 특성을 탐구하는 연구방법론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그 실재를 보여준 것이 2009년에 개최한 「족보의 사회문화사·역사인구학」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이다.³⁰⁾ 본 학술회의는 한국과 중국의 族譜(宗譜, 世譜), 일본의 家譜 등의 자료를 사회문화사나 역사인구학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호적·족보의 전산화 사업은 지식정보화에 따른 기술과 전통적 학술 연구 방법의 접목을 통해 종래 구현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역사 구조와 그 변동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산화 작업은 새로운 학문 연구 영역을 개척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호적과 족보로 구현되는 연구 결과는 가족, 결혼, 사회 구조 등에 대한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인구학’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분석·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학술회의를 통해 전개되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호적-족보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학 워크숍’(2012.6.25.~28.), ‘조선왕조 지방의 현물재정 운영방식과 현상’(2011.12.16.), ‘조선후기 재정제도의 지속과 변동’(2013.4.20.), ‘조선후기 친족 네트워크의 활용-호적과 족보를 통하여’(2014.2.21.),³¹⁾ ‘조선후기 부세

30) 2009년 8월 27~28일에 개최된 본 학술회의 ‘학술원’의 호적연구팀 뿐만 아니라 James Lee(홍콩대), Cameron Campbell(UCLA), 定宜庄(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Wang Linlan(북경대) 등 관련 분야의 선도적 연구자들이 족보를 중심으로 ‘역사인구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31) 학술회의 발표된 李柔珍, 「18세기 대구부 서상면이 신분변동에 대한 계보적 추적」; 李東奎, 「조선후기 호적상 무임직역이 계승과 변동-대구부 읍치와 외촌에 거주하는 몇몇 가계들을 사례로」;

수취 관행과 ‘중간비용’(2015.5.30.),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의 장기적 관점’(2017.2.9.)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활동은 마침내 한국의 호적과 족보를 이용한 역사인구학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결실을 맺은 것이 『한국 역사인구학의 가능성』 출간이었다.³²⁾ 또한 2006년 시작한 「경상도 대구부 호적대장 전산화」 과제가 마침내 2019년 대구호적 데이터베이스로 완성되었다. 이로써 ‘학술원’(정확하게는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한 호적 전산화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러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한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를 출간하였다.³³⁾ 이 책의 1부 “시대를 넘어선 호적의 존재와 그 의미”, 2부 “신분의 계승과 변동을 추적하는 새로운 방법”, 3부 “지역과 네트워크, 그리고 역사인구학”이란 구성으로 전근대시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동아시아 사회를 인구의 변화를 통해서 조망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사회의 변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역사성’을 통해 설명하려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호적 및 족보 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한국사회의 역사인구학 연구는 비교사적 방법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한기형의 지적은³⁴⁾ 대동문화연구원의 장기과제인 호적대장 전산화 작업의 학제적 연구의 내재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학술원’(대동문화연구원)에서 10여 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된 호적연구는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의 마지막 장에 게재된 계봉오·박희진의 논문인 「한국의 인구변천과 혼인출산율 변화·자녀의 생존과 출산 간격 조절을 중심으로」처럼 현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인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면서도 거시적인 학문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한 ‘학술원’이 주창한 ‘복합인문학’으로서의 새로운 연구방법과 그 결과가

尹仁淑, 「17세기 丹城縣 엘리트의 조직 형성과 인적 네트워크-丹城鄉案을 중심으로」; 朱玟, 「17·18세기 대구월촌지역 단양우씨 족계 형성의 주도세력」; 韓相祐, 「조선후기 退溪 후손들의 陶山書院 院長職 취임 양상과 친족집단의 역할」 등의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의 논문이 『대동문화연구』 87(2014.9)에 게재된 것은 호적 족보 연구의 장기적 연구과제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제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손병규 외 지음, 『한국 역사인구학의 가능성』, 성균관대출판부, 2016.

33) 손병규 엮음,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성균관대출판부, 2020.

34) 한기형, 「동아시아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원 50년』(1958~2008), 성균관대출판부, 2008, 173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표 3>의 ‘지식’과 ‘질서’ 영역의 연구주제 또한 HK사업 초창기에는 주요 연구주제로 국내외 학술회의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활동의 중심에 있던 연구자의 이직이나 장기 연구 계획의 미흡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IV. ‘학술원’, 한·중 학술 교류의 ‘橋梁’

‘학술원’이 설립된 후, 20년 동안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한 학술영역은 해외학계와의 학술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학술 연구 네트워크의 국제화는 상기한 ‘학술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아시아학의 개념과 방법론, 전통과 근대에 대한 성찰, 유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노력은 2001년 8월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 창간호를 발간하고 A&HCI(2009.12)와 SCOPUS(2011.5)에 등재되는 등 ‘학술원’의 연구 성과를 세계 학계와 호흡을 함께 하고자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⁵⁾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58개 기관과의 전방위적 학술 네트워크의 구축은 ‘학술원’의 연구 성과를 해외 연구 기관 및 연구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실질적 학술 교류의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³⁶⁾ ‘학술원’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백여 차례를 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나 해외 석학의 초청 강연 등은 ‘학술원’과 해외 학술회의 상시적인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학의 국제화에 진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5) 이러한 국제화의 노력은 영문학술지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가 A&HCI (2009.12)와 SCOPUS(2011.5)에 등재되는 성과를 얻었다.

36) 2020년 10월 현재, 주요 학술 교류의 대상국가와 대학 및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1)유럽: Sorbonne(프랑스), SOAS(영국), Leiden(네덜란드), NAPSA(루마니아), Oslo(노르웨이), Sofia(불가리아); 2)아시아: Beijing, Fudan, Tsinghua, CASS 등(이상, 중국), Tokyo, Kyushu(일본), Hanoi(베트남), Chulalongkorn(태국), De La Salle(필리핀), Jawaharlal Nehru(인도), UM, USM(말레이시아), NUM(몽골); 3)미주: UCLA, Washington, Hawaii, Chicago, Michigan(미국), UBC(캐나다) 등.

더욱이 2015년 설립된 IUC(Inter University Center)는 ‘학술원’이 한국학·동아시아학의 교육 및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의 목표는 서구권 한국학(동아시아학) 후속세대 연구자들에게 학술적 한국어 및 한문 교육 강좌와 특강을 통해 한국학 연구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한국학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북미의 저명한 대학(UCLA, Harvard, UBC, Chicago 등)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연구자들이 주요 수강 대상자로서 이들은 향후 ‘학술원’과 미주 한국학계의 주요한 학술 교류의 소통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국제학술지의 발간, 해외학자와의 교류,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과 같은 활동은 모두 ‘학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화의 현 주소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 활동의 국제화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의 정례학술회의이다. 본 학술회의는 두 기관이 체결한 상호 학술교류 협정에 근거하여 역사학에 기초한 전근대/근현대 동아시아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즉 두 기관의 실질적인 학술교류의 강화와 공동의 연구주제 모색을 통하여 동아시아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진행된 지난 10년 동안의 학술회의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학술원’과 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공동주최 학술회의 연혁(2011~2020)

연차	회의주제	개최지, 주관기관	개최연도
제1회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출토문헌과 호적·족보를 중심으로	북경: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11
제2회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사(士)’	서울: 학술원	2012
제3회	유가문화와 동아시아 사회	북경: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13
제4회	동아시아에서의 고문헌의 유통과 문물교류	서울: 학술원	2014
제5회	유법사상과 동아시아 지역사회	安徽, 蕪湖: 안휘사범대학	2015
제6회	동아시아 역사상의 문화교류와 상호인식	서울: 학술원	2016
제7회	동아시아 전통질서와 변화	安徽, 合肥: 안휘대학	2017
제8회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	제주: 학술원	2018
제9회	동아시아 역사문화의 전승	雲南 昆明: 운남사범대학	2019

제10회 ³⁷⁾	동아시아 자료에 보이는 문사전통과 정신의 새로운 탐색	안동: 학술원 · 경북대 인문학술원	2020
---------------------	-------------------------------	---------------------	------

상기한 <표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학술회의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도 학술회의 주제가 10회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이라는 일관된 주제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회의 주제’ 결정 과정에 대해 언급하면 개최 주관기관에서 제의하고 상대기관이 검토한 후 수정 제안을 하면 상호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학술회의 초기에는 두 기관 소속 연구자들 사이에 각자의 주장과 견해를 피력하여 공동으로 학술 교류를 진행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그렇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토론과정에서 상호 의견의 수렴을 통한 자신의 논지를 심화하려는 노력과 결실은 제2회, 제4회, 제6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학술지의 특집호 혹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음이 이를 증명한다.³⁸⁾ 또한 학술회의 교류를 통한 연구자간의 신뢰는 곧 연구자간의 파견 연수로 이어져 중국학자 대위홍은 1년 동안의 ‘학술원’에서의 연구를 기초로 『韓國木簡研究』³⁹⁾라는 해외학자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著作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학술회의 결과물의 출간은 중국 역사연구자들과의 ‘동아시아’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한국에서 ‘동아시아’라는 인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문화의 종주국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 지역에 국경을 걸치면서 동시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 ‘패권’을 도모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더욱이 교류기관이 중국 정부의 학술적 대표 기관임을 고려한다면—‘동아시아’는 중국 동부와 연이어 있는 지역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37) 제10회 학술회의는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취소되었다.

38) 김경호·손병규 책임편집,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사(士)』, 성균관대출판부, 2013; 김경호 책임편집, 『동아시아 역사상 문화교류와 상호인식』, 2017; 『대동문화연구』 88(2014)에 수록된 藤田勝久, 「일본에서의 『史記』年代學 연구」; 戴衛紅, 「중·한 “貸食簡”연구」; 萬明, 「중국에 소장된 조선 檔案 유일본-『朝鮮迎接天使都監都廳儀軌』에 대한 제고」; 金慶浩, 「4-6世紀 동아시아에서의 文獻의 流通과 擴散」; 河永輝, 「표상으로서의 정몽주 글씨」; 李吟昊, 「朝鮮의 朱子文集 註譯書와 그 의미」 등이 주요 결과이다.

39) 戴衛紅, 『韓國木簡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 차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공감할 수 있는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술교류를 통한 ‘학문적 공감’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야만 비로써 농익은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의 학술교류이다. 따라서 ‘학술원’이 중국 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지난 10년의 교류 기간은 ‘학문적 공감’이 축적되면서 형성된 학문연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V. ‘학술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

지난 20년 동안 ‘학술원’의 교육·연구기반 조성은 지속적인 학교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하에 수행된 두뇌한국(BK)21과 인문한국(HK)지원 사업의 재정 지원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대학원 동아시아학과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계의 ‘談論’ 형성과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 기획은 자연스럽게 ‘학술원’을 인문학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과 ‘학술원’의 연구 기획의 결합은 ‘학술원’의 성장을 주도한 실질적인 배경이었다. 사실 이러한 성장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급성장이었다. 마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弱冠’의 청년이 비교적 성숙된 ‘而立’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성장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를 내주기도 하였다. HK사업 10년 동안 ‘학술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연구비를 보장받으면서 학술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사업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안정적 연구 지원이 지속될지는 결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HK 사업 시작 단계부터 종료까지 참여한 연구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새로이 임용된 연구자들이 기존 어젠다 혹은 학제적 연구 방법과 유기적 결합이 결코 쉽지 않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원’이 얼마만큼 주도면밀하게 교내외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기반을 재조직하고 이들과의 학술적 관계를 유지·관리하느냐에 있다. 바로 이 점이 ‘학술원’의 미래 지향점과 우수 연구자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두 관계를 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학술원’의 학문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른바 ‘동아시아고전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른바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고전학의 정립’이라는 과제는 틀림없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학술원’에서 정립해야 할 ‘고전학’이란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이른바 새로운 인문학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⁴⁰⁾ ‘학술원’에서의 ‘고전’ 연구란 근대 이전에 출현한 오래된 漢文과 古文으로 작성된 문헌을 연구하는 종래의 분과 학문에서 벗어난 연구이어야 한다. 더욱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漢文으로 작성된 문헌을 고전이라 칭하고 이를 연구하는 ‘漢文學’이란 연구 방법도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학술원’의 학문적 현실을 반영한 ‘고전학’ 연구의 모델은 기존의 한문학과 역사학, 철학(사상), 그리고 출토문헌 연구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모델로 구성될 때, 학제적 연구는 물론이고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고전 문헌을 보편적 시각으로 확대하여 연구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一國’에서 생산된 文集과 같은 고전 문헌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권역에서 보편적 원리로 자리잡고 있는 고전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연구가 ‘학술원’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연구과제와 대상은 아닌가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과학문 구조에 있는 자신의 학문적 영역과 성격에서 학제적·종합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러한 급선무의 해결은 단순히 새로운 연구과제의 창안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학술원’이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 온 학문 발전에 대한 점검과 계승이면서 향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의 기간을 견인할 새로운 인문학이 혁신적 연구 방법의 제시일 것이다.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고전학’에 대한 고민과 방안은 ‘학술원’의 전신인 대동문화연구원으로 시작되는 학문 전통의 계승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혁신’적 구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술원’의 독창적인 연구 방향성과 그 방향성이 시대적 조류와의

40) 진재교, 「동아시아 고전학과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42, 2014, 37~66면; 안대회, 「한국 고전학의 방향」,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안대회 외 지음), 성균관대출판부, 2018 등은 한국학계의 고전학의 학문적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한국의 고전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상관 관계하에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수행한 ‘동아시아학’에 대한 ‘학술원’의 자기비판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곳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학계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바로 ‘학술원’의 미래를 새롭게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인한 · 김경호 · 이승률 책임편집, 『죽간 · 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출판부, 2011
- 권인한 · 김경호 · 이승률 책임편집, 『동아시아자료학의 가능성-고대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출판부, 2009(→ 權仁瀚 · 金慶浩 · 李承律 編, 『東亞資料學的可能性探索』,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 김경호 책임편집, 『동아시아 역사상 문화교류와 상호인식』, 2017
- 김경호 · 손병규 책임편집,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사(士)』, 성균관대출판부, 2013
- 김경호 · 이영호 책임편집, 『地下의 논어, 紙上의 논어』, 성균관대출판부, 2012
- 김시업 · 마인섭 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출판부, 2005
-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 출판부, 2002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2000
- 손병규 엮음,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성균관대출판부, 2020
- 손병규 외 지음, 『한국 역사인구학의 가능성』, 성균관대출판부, 2016
- 안대회 외 지음,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 성균관대출판부, 2018
- 임지현 · 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 최원식 · 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 권내현, 「朝鮮後期 戶籍의 作成過程에 대한 分析」, 『대동문화연구』 39, 2001
- 김건태, 「朝鮮後期の 人口把握 實狀과 그 性格-단선현 호적 분석」, 『대동문화연구』 39, 2001
- 김준형, 「조선후기 단성지역 사회변화의 역사적 특성-사족층이 입지변화와 대응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200
- 노영구, 「朝鮮後期 戶籍大帳 研究現況과 電算化의 一例」, 『대동문화연구』 39, 2001
- 李勝雨, 「戶主制度의 沿革의 考察과 立法論-유교적 전통성 논의와 관련하여」, 『대동문화연구』 38, 2001
- 손병규, 「戶籍大帳 職役欄의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2001
- 이성시 · 윤용구 · 김경호, 「平壤 貞柏洞364號墳출토 竹簡『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2009(→ 李成市 · 尹龍九 · 金慶浩 筆(橋本 繁 譯), 「平壤貞柏洞三六四號墳出土竹簡『論語』について」, 『中國出土資料研究』第14號, 中國出土資料學會, 2010; 李成市 · 尹龍九 · 金慶浩, 「平壤貞柏洞364號墳出土竹簡『論語』」, 『出土文獻研究』(中國文化遺產研究院 編)第十輯, 2011)
-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 『대동문화연구』 39, 2001
- 진재교, 「동아시아 고전학과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42, 2014

한기형, 「동아시아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원 50년』(1958-2008), 성균관대출판부, 2008

한국고대사학회·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2012

廣瀬憲雄,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1

堀 敏一, 『東アジア世界の形成-中國と周邊國家』, 汲古書院, 2006

東アジア地域研究會 片山 裕+西村成雄 編, 『東アジア史像の新構築』, 青木書店, 2002

西嶋定生,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岩波書店, 2000

川勝 守 編, 『東アジアにおける生産と流通の歴史社會學的研究』, 中國書店, 2003

戴衛紅, 『韓國木簡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馬大正, 『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復旦大學文史研究院 編, 『從周邊看中國』, 中華書局, 2009

20 Years of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AEAS) in the Study of 'Materials(資料)' — Focusing on Unearthed Materials and Family Register

Kim, Kyung-ho

The launch of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AEAS)'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creation of new research tasks and the creation of research methods for the 21st century Korean human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cademic systems that lead to changes in the times. To this end, the 'AEAS' established its goals and directions as follows: the first intensiv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orie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nd Asian studies, the second establishment of a direction in response to the new era in the 21st century, the third organic combina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exchange of East Asian studies. The establishment of these goals and directions was, among other things, to secure a leading position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nd East Asian studies as the home of East Asian studies through reflection and reflection on the Korean humanities in the 20th century and to take a future-oriented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So what is 'East Asian Studies?' And what will you do? It would not be too much to say that the problem was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of the 'AEAS' and that the process of seeking answers was 20 years of research by the institute.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AEAS's research activities have been a shift in the way it has traditionally dominated the Korean humanities community. The key content was to try to interpret the history and culture of East Asia as a whole, to avoi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modern studies, to establish comprehensive studies cover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to actively pursue directions applicable to reality. In other words, the 'academic institute' aims to realize 'complex humanities' that contribute to the new development of Korean literature by exploring, communicating, and

expanding new models that uniformly understand the plurality and universality of East Asia. The representative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 of history were the field of historical and demographic studies based on the research on excavated materials represented by the study of bamboo-thin woodwork and the historical and ethnic genealogical materi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under this theme. In particular, the 10-year regular academic conference with the Institute of History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s a great achievement.

Instead of being complacent with these achievement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Academy should present innovative research methods for new humanities based on them so that it can maintain its identity as a research institute. As one of these research topic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ield of Classical Studies by East Asian Perspective. Moreover, in order to pioneer a new field of research, above all else, the original direction of research and its direction must be pursued in relation to the trend of the times.

Key Words :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unearthed materials(Bamboo and Wooden slips), family register, globalization, East Asian Classics

